

韓國美術史學會 創立二十周年 紀念 座談會

時 .. 一九八〇年 五月 二十九日

場所 .. 潤松美術館

金 元龍 全 晟 雨
 鄭 永 鎬 崔 淳 雨
 秦 弘 燮 崔 完 秀
 黃 壽 永 羅 善 華 (記 錄)

一、創刊動機와 創刊號 發行

秦弘燮 .. 考古美術이 一九六〇年 八月十五日에 創刊號가 나와 올 八月十五日에 創立 二十周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創刊同人의 한분이신 潤松宅에 創刊同人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二〇년을 회고 하면서 考古美術을 創刊할 當時 또는 『考古美術』이라는 會誌名을 작정한 그 때 이야기부터 해 주시지요.

鄭永鎬 .. 創刊號에 考古美術이라는 題字를 三佛先生이 쓰셨고 그것을 題字로 五號까지 發行했습니다.

秦弘燮 .. 네, 그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鄭永鎬 .. 우리 美術史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潤松宅에 모였었는데

그때 定期刊 行物을 하나 냈시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그것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좀 연구를 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財政 問題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四·一九가 되고 六十年대가 돼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하고 八·一五를 기념하여 창간호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自左 (全晟雨 · 黃壽永 · 崔淳雨 · 秦弘燮 · 金元龍 · 鄭永鎬 · 崔完秀)

崔淳雨.. 날자는 잊어버렸지만 그 무렵 蕉雨先生과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일 때문에 회화동 로터리에 있던 가나안 茶房에서 만났일이었어요.

活字 인쇄로 考古美術을 내는일이 거의 가까운 장래에는 가능성이 없
음으로 우리 등사판인쇄로 시작하십시오. 하는 의논을 한 것이지요 그
때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글을 써서 남겼읍니다만,

金元龍.. 그때 이것은 국립박물관에서 하자고 해서 저한테 맡겨진 것 같
아요. 내가 그 考古美術이란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고 同人들이 決定
한 것인데 冊을 내는 段階에 급해서 題字를 自己가 썼지요.(웃음) 글
씨를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이면 함부로 못쓰는 것인데 그때 그런걸
모르니까 無識이 용기라고 회 썼지요.(일동 웃음) 지금 보면 그럴씨
...우스워서 못봐요(웃음)

鄭永鎬.. 그래도요, 힘이 쪽쪽뻐힌 글씨예요. (웃음)

黃壽永.. 그때 사무실이 국립박물관이었나요?

崔淳雨.. 국립박물관 연구과에 있었지요.

鄭永鎬.. 그때 한참 박물관에 있다가 館內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서 그걸
가지고 나왔지요.

金元龍.. 그런데 그때 박물관의 『美術資料』가 같은 해에 나왔던가?

다음해 나왔나요?

鄭永鎬.. 같은 해 年末에 나왔읍니다.

金元龍.. 그러니까 美術資料는 考古美術에 자극을 받아 나온것 같아요.

秦弘燮.. 내가 들은 얘기로는 박물관에서도 잡지를 하나 내려고 계획했
는데 考古美術이 나오자 金載元 館長이 아차 이거 좋은 이름을 빼졌
단 말이야 했단데요. (일동 웃음)

一 同..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웃음)

鄭永鎬.. 여러가지로 因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考古美術同人會에서
는 새로운 美術史研究資料를 學界에 매달마다 신속히 알리는데 意義
가 있다 해서 油印物로 하고 사진은 박물관 암실에서 이영락씨가 직
접 싹을 뽑아서 붙였어요.

崔淳雨.. 박물관에 마침 암실을 새로 마련했었기에 거기서 사진을 직접
만들어 붙였지요. 이준구씨와 이영락씨 등 여러분이 수고했읍니다.

秦弘燮.. 그런 시작의 이야기 다음에, 이번에는 同人會의 결성 동기가
무엇이나 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이야기 좀 합시다. 왜 同人會란 이름
을 썼는지...:..: 제 생각에는 그때 모이는 인원도 적고 원고도 적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학회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 同人會로 출발하여 상
당기간이 지나 學會運營體制가 갖춰지며는 그때 學會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였지요.

鄭永鎬.. 말하자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뜻도 있고 반면에 겸
손한 뜻도 있어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발전하는 것이 좋다하여 처
음에 『同人會』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
이 나요.

金元龍.. 하여튼 考古美術同人會의 출발은 착실하게 잘된거예요.

秦弘燮.. 同人會 발족과 더불어 會誌로서 考古美術 創刊號를 발간했는데
그 기본 방침이 뭐냐하는 겁니다.

鄭永鎬.. 그건 그때 아마 創刊辭를 三佛이, 쓰신걸로 아는데...:

金元龍.. 아 그래요?

秦弘燮.. 二〇〇자 원고지로 二-三장정도 되는 내용지이요.

金元龍.. 아 그래요. 그정도 됐을것 같아요. 그때 난 하여튼 蕉雨를 통
해서 들었는데 그때 내 생각은 그때 그때의 새로운 자료의 소개, 정
보제공 그런걸 하자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는 학술적인 논문이나 그
런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또 당시 한참 물건이 팔려지
고 注目되기 시작한 때인자라 각자가 조사하고 발견한 것을 체계적으
로 발표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고 하니까 나오는대로 즉시 즉
시 사진을 붙여서 속보를 내자 하는데 취지가 있었단 걸로 알고 있읍
니다.

秦弘燮.. 네 그래요. 創刊辭에도 이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同學들에게 널
리 알려지지 않으니 기록으로 남겨서 알게 하자. 길은 연구는 다음에



로 미루어도 우선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썼어요.

黃壽永.. 바로 그런 거였어요.

澗松先生도 그런 걸 하나 할려고 생각이 있으셨던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통문관에서 내겠다고 했었는데 잘 안되어 油印物로 나오게 되자, 배후에서 많은 힘이 되었어요.

金元龍.. 하여튼 그 당시 아지트가 澗松宅이었어요. 澗松살롱이 총본산이었지... 거기서 밤늦술 마시면서... (일동 웃음)

全晟雨.. 저도 그때 澗松이 편지에다 적어보내셔서 알고 있었어요.

秦弘燮.. 創刊號때 집필한 분이 蕉雨(黃壽永), 三佛(金元龍), 澗松(全鑿弼), 兮谷(崔淳雨), 또 며칠 전에 돌아가신 然齋(洪思俊), 그때 박물관에 계시던 尹武炳先生, 전 그때 경주에 있었을 떤데 蕉雨한테 이야기를 듣고 참여했고, 鄭先生이 쓰셨고, 그래서 8편이 실렸지요.



二、百號까지의 經緯

秦弘燮.. 會誌를 발간하면서의 이야기도 많을 텐데요. 가령 費用問題라든가, 사진을 붙이던 일 등 회고담이 되겠지요. 참 油印物을 내고同學들의 반응은 어떻했는지요.

崔淳雨.. 반응도 매우 진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에, 젊은 사람들

이 확 모여 들었지요. 特히 鄭先生이 중심이 되어서... 그 후 2年間은 내가 外國에 있었으니 잘 모르겠는데 돌아와 보니 鄭先生이 끌고 나가고 있었읍니다. 원고독촉부터 편집, 사진, 인화까지 해서 붙이는 작업까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나라에 디젤기관차가 처음 들어온 때라 『디젤 기관차』란 별명을 붙였어요. (일동 웃음)

金元龍.. 이 양반 부락을 받으면 거절 못해요. (일동 웃음)

秦弘燮.. 그런데 그때 우리가 책을 낼 때 同人會에 돈이 없었어요. 그 때



서 創刊號를 낼 때부터 一〇〇호까지 한호 낼 때마다 시주를 걸어서 냈거든요.

鄭永鎬.. 그때 施主라 그랬지요. 개인 개인이 五千원 아니 五천환이지요. 秦弘燮.. 우리가 蕉雨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슬값 한 번 낸 셈치고 내라 해가지고 비용을 얻어서 내곤 했지요.

金元龍.. 내가 六一年에 장 옥진씨 그림 六호를 학교에서 받은 월급 전 체인 二〇,〇〇〇환 주고 샀으니, 그때 五천환이 큰 돈이지요.

鄭永鎬.. 저희 등록금이 六, 七천환이었으니 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製作가 一〇〇부의 프린트 비용보다도 사진 값이 상당히 차지했었을 겁니다. 논문 一〇편에 사진 一〇장이면은 一〇〇부이니까 一,〇〇〇장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니까요, 아무리 실비로 해서 직접인 화한다고 해도 상당한 지출입니다. 저는 마침 그때 암실을 갖고 있었으니까 선생님께 「제 사진은 제가 갖다 올리겠습니다」 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한 호에 十七枚의 사진이 들어가는 척도 있었지요.

秦弘燮..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있었어요.

鄭永鎬.. 그러면 一, 七〇〇장의 사진이 들어가고 그것을 일일이 붙이는 거지요, 그러니 사진 값도 상당했어요. 五〇〇〇환의 제작비는 一二年 후 화폐개혁 이후에도 역시 五〇〇〇원으로 호당 五〇〇〇원이 들었어요. 제가 창간호 때 부터의 장부를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一 同.. 야! 대단합니다.

鄭永鎬.. 사실 매달 「考古美術」을 내는데 그것도 一, 二년이지 매달 五〇〇〇원씩 施主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先生님들의 친구 분 되시는 張衡植先生님이 전적으로 도와 주셨지요, 崔淳雨.. 張衡植氏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韓國銀行의 등사부의 황.....

누구지요?

鄭永鎬.. 황윤복씨요

崔淳雨.. 그이가 참 굉장한 공을 세웠는데.....

秦弘燮.. 韓國銀行 전속 필사입니다.

鄭永鎬.. 그때 張衡植先生이 韓國銀行 幹部로 계셨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황윤복씨가 一〇〇호까지 쓰셨읍니다. 「考古美術」資料集도 다 그분의 글씨입니다.

秦弘燮.. 아주 전담을 했어요.

鄭永鎬.. 그래서 同人會가 韓國美術史學會로 발족하면서 그분께 기념품을 해드렸읍니다. 그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길을 터주고 또 저희가 책을 낼 때 도와주신 大施主중의 大施主가 바로 張衡植先生님입니다. 그래 그분은 명예회원으로 모셨지요. 그렇게 하는 한편 考古美術同人會의 基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한국모방을 하시던 黃潤克先生이 大施主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길 考古美術同人會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참 그런 모임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 주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때 五, 〇〇〇원이면 족하던 때인데, 화폐개혁 이후지요, 三〇萬원을 주셨어요, 전 三萬원인 줄 알았거든요. 三〇萬원이었어요. 참 감격했읍니다.

一 同.. 오!

鄭永鎬.. 그래서 考古美術同人會의 기금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그 黃潤克先生님의 三〇萬원이고 그후에 역시 그 先生님이 一〇〇萬원까지 를 채워 주셨읍니다.

그렇게 施主를 걸어서 책을 발간하고 또 언제부터인지 여러 선생님宅에 돌아가면서 일을 했지요.

秦弘燮.. 수 백장의 사진들을 모여 앉아서 붙이고, 발초.봉투까지 다하고:

全晟雨.. 저도 그때 처음 秦先生님宅에 가서 사진 붙이고 그랬어요.

鄭永鎬.. 다하고 나면 으레 그宅에서 한잔내고 그랬지요.

秦弘燮.. 同人들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붙이고 끝나면 한잔 먹고 그거 야말로 同人들이 모여 책을 만드는 거였지.

金元龍.. 그때 모두 열기가 있었으니 까 했지 열이 없었으면 돈을 준대도 누가 그런 걸 붙이겠어요. (일동 웃음)

鄭永鎬: 잘 붙였나 점검도 하셨죠?

秦弘燮: 一號때 一〇〇부를 찍었는데 一〇〇부가 다 나갔지요? 一〇〇호도 一〇〇부 찍었는데 그뎐 모자랐던 것 같아요.

金元龍: 처음 創刊號는 모자라지 않았지만 뒤로는 계속 모자랐을거예요. 鄭永鎬: 六〇년 八月 一五일에 창간호가 나오고 一二月에 五號까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국립박물관에서 맡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澗松先生이 이 건 미스타鄭이 맡아서 해야 했는데 우선 종로 四가로 가고요, 그래서 澗松先生님宅인 종로 四가에서 일을 했지요. 제가 정식으로 「考古美術」을 맡은 것이 六一년 一月에 幹事로 정식 임명되면 서부터입니다. 그때 종로 四가 선생님께 黃先生님을 모시고 세배를

갖었는데 東濱先生 李相伯先生 李弘植先生, 金元龍先生들께서 모여 앉아 계시더군요, 崔先生님은 구라파에 계실때고 또 秦先生님은 慶州에 계실때죠.

秦弘燮: 慶州에 있었지.

鄭永鎬: 그때 先生님들끼리의 말씀이 있으셨던 가 봐요. 제가 큰절을 드리고 나니까 오늘 이날이 뜻있는 날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鄭先生을 幹事로 임명하는 날이라고 말이지요. (일동 웃음) 그래서 전혀 각오도 없이 임명을 받았지요.

金元龍: 정말 그랬으면 그랬어(웃음)

鄭永鎬: 기억나세요? 그렇게 澗松先生님이 선언하시자 東濱先生님, 李相伯先生님이 그러니까 추배를 하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큰 잔으로 주셔서 그걸 주신대로 다 받아마시고 얼른하게...:

金元龍: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秦弘燮: 그때는 주량도 대단했지(일동 웃음)

鄭永鎬: 그때 마침 저의 집에 전화가 있어서 考古美術 六호부터의 연락

저가 저의 집 주소가 되었지요. 종양동이던가?

鄭永鎬: 종양동입니다. 종양동 一三의 三〇호. 그렇게 해서 업무를 주서

서 그 후 매일 선생님들께 연락드리고...: 그래서 그때 말씀이 鄭永鎬는 考古美術하고 결혼한 걸로 알아라 그러셨어요. (일동 웃음)

그리고 「考古美術」題字도 阮堂集字로 澗松께서 밤새워가면서 마련해 주셨는데 아침일찍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術」字 한자가 나오지 않아 여러 글자로 뜯어 맞추려 하는데 밤중 子正쯤 되었는지 부엌에 들어가 방채로 쪽 트리키고 얼큰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와 다시 글자를 찾아려고 冊을 펴는데 첫눈에 「術」字가 보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말씀을 저녁 퇴근때宅에 가서 듣고 그 후 어디 수필에도 썼읍니다만...: 그날밤에 술 많이 했읍니다. 이후 六호부터는 현재 쓰고 있는 「考古美術」阮堂集字를 사용하였지요.

秦弘燮: 추가때죠?

鄭永鎬: 그런줄 알라고, 그러면 적당한 때 증해도 서주고 주레도 서주고 다해 줄테니까 그때 가라구 하셔서 전 뒤 움작 못했지요. 그래서 그 후 종로 四가 澗松宅에 매일 가서 편집하고 일 끝내면 또 先生님이 주시는 잔 받고 이걸로 한잔하고 가라고 하시면서 靑磁鑪를 내오시면 또 마시고 그래서 一週日을 집에 못들어간 적도 있었지요. 퇴근하면 종로 四가로 바로 가고 그랬지요. 퇴근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편집일이 조금 남았어」 그러시니까요. 그래 一주일째 되는 날은 집에 돌아가다가 제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앞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을 해서 사고를 났읍니다. 그 후론 다시 자전거를 안타지요.

秦弘燮: 그렇게 해서 考古美術이 매달 거르지 않고 一〇〇號까지 나왔읍니다.

金元龍: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秦弘燮: 一〇〇號까지가 八年 몇개월인데 꾸준히 해갔지요. 同人들끼리

.....

三、美術史學會로의 發展

秦弘燮.. 考古美術이 그전은 資料 소개가 대부분이였지만 이제는 論文의

주로 편집방침을 바꾸자 하는 전환이 있는걸로 기억되는대요.

崔淳雨.. 그렇지요. 그때 考古美術 一〇〇號가 나오는 六八年 一月에

記念모임도 갖고 강연회도 하고.....

秦弘燮.. 考古美術 同人會가 一〇〇號까지 활동하여 사회의 인정도 받았

고 八년여 동안 겸손히 활동했으므로 이제는 學會로 발전할 자격이 있

다고 생각되어 學會로 등장하였는데 학회로 바뀐 그때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黃壽永.. 그것은 그前에도 논의가 있었어요. 一〇〇號까지 내고 그후에

學會로 이루자 하는... 日本이나 外國에 考古美術을 보내자 들려오

는 이야기가 세계에 여러 학회지가 많지만 가장 궁색한 잡지가 考古

美術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웃음)

秦弘燮.. 그러나 內容이 그렇다하는 이야기는 없었지요.

黃壽永.. 네, 새로운 資料가 속속 실리니까 서로 구할려고 애썼다고 합

니다.

金元龍.. 특히 日本같은데서는 많이 애썼지요. 梅原末治도 원고를 보냈

었지요?

秦弘燮.. 네, 梅原末治가 두세번 원고를 보냈어요.

金元龍.. 考古美術을 印刷本으로 바꾸면서 會誌名을 바꾸자 그대로 두자

잠간 論議가 있었는데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신 분이 蕉雨였지요?

秦弘燮.. 정식 學會로 전환하면서 발간사가 있었는데 창간사를 회고하면

서 우리도 이렇게 썼으니 회지를 印刷本으로 내고 학회로 발족한다하

는 인사가 있었읍니다.

金元龍.. 그것이 一〇〇호인가요?



黃壽永.. 一〇一號입니다 제간으로 내면서 부터지요.

秦弘燮.. 考古美術 同人會가 학회로 발전할만큼 무르익었지만 원고 얻기

도 힘들고 학회에 기금이 없어 학회지를季刊으로 할 수 밖에 없었지요.

鄭永鎬.. 그때의 가장 애로는 考古美術을 一〇〇부 限定版으로 했지만 회

원이 증가하여 실수효는 一三〇부 一五〇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물로 일일이 사진을 붙여서 제작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

래서 油印物로는 안되겠다하여 五〇〇부 한정版的의 印刷物로 학회지를

발간하고 同人會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한국미술학회로 하자는 논

의가 있었읍니다. 「한국미술사학」회 定款을 兮谷先生이 초안하여 文

甲洙先生이 있는 淑明女高에서 심의를 했었지요.

黃壽永.. 會長이 그때부터 선출되었던가요?



鄭永鎬 : 네, 그때 한국미술사학회로 발족하면서 대표와 운영위원장제도를 두고 간사를 두자하여 初代 代表로 秦弘燮先生님이 선출되었지요.

秦弘燮 : 初代하고 이번에 또 말았는데 거정입니다.

金元龍 : 初代하고 二〇周年, 중요한 시기만 말으셨군요. (일동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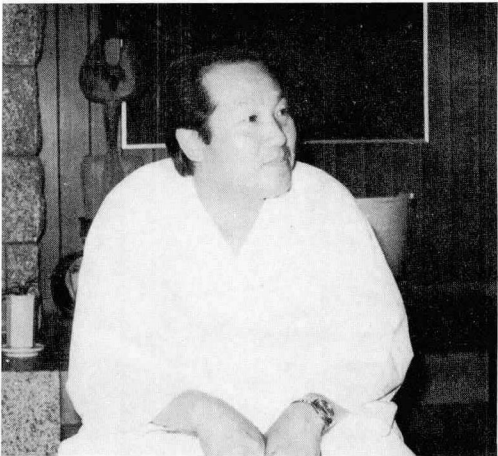
四、學會運營의 展望

秦弘燮 : 여담이지만 사무국의 일이 많아 힘들어요.

우선 경영상의 문제로 미남회원 五〇〇명에게 일일이 회비 독촉장을 내었는데 그 일에 우리 박물관 전 직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학회의 연회비가 五,〇〇〇원이니까 이것은 회지 1권에 1,250원 끝인데 회지인쇄비가 1회에 거의 1,250,〇〇〇원 듭니다.

이것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1,〇〇〇명은 있어야 회지를 찍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현실적으로는 통계상 말이 안되요.



金元龍 : 회비 미납자에게는 회지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책을 안보내니까 급해서 회비를 내게 되어요.

秦弘燮 :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나에게 책 좀 보내주면 어떨까』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회비 미납자에게는 회지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어요. 경영상의 문제는 회원의 확대와 함께 자금조성에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앞으로 그러한 학회의 운영문제, 또 학회의 논문 선별문제, 학회의 사망 등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요.

金元龍 :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목적이냐 사명이 또 특수하겠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만 회지 게재 원고를 앞으로는 선별해서 원고를 조금 스크린하 여야 겠읍니다.

黃壽永 : 조금 아니라 많이 해야지요.

金元龍 : 외국의 유명한 학회는 게재료를 갖고 와서 논문을 신고 있고, 미



국의 카렐트 안슬로 폴로誌는 一년전에 원고를 一〇여명의 위원에게 보내어 읽고 그 코멘트들과 그에대한 필자의 회답을 함께 싣고 있어요. 우리도 원고를 선별해서 학회나 기고자가 권위가 서도록 해야겠어요. 黃壽永.. 앞으로 어떤 기구가 있어 논문을 엄격하게 읽어 논의를 해서 엄선 해서 실어야 해요. 그러면 본인도 좋고 학회도 좋고.....

崔完秀..美術史人口가 적어 원고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애로는 있습니다 鄭永鎬.. 논문엄선이라는 입장에서 미술사학회가 進一步한 셈이지만 制度化되어야겠지요.

黃壽永.. 그동안 資料集의 發刊이 중단되었는데 계속 발물해서 중요자료는 발간하고 그 안에서 再版할 만한 것은 선정해서, 活字本으로 만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秦弘燮.. 앞으로는 考古美術이 油印物일 때의 資料소개에서 進一步하여 論文을 게재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지 資料소개로는 學會誌로서 生命이 짧으니까 資料는 資料, 論文은 論文대로 區分해야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미술사학회의 方向, 자세 등에 對하여 이야기합시다. 黃壽永.. 신는 論文·資料의 난은 명확히 구분해서 論文은 學界의 礎石이 될 수 있는 그런 論文을 싣고 가능하면 外國人의 論文도 수용해서 外國의 會員들도 多數있으니 그들의 論文도 실어서 外國의 우리 한국 미술사 전공분야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 관심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합시다.

金元龍.. 한 가지 자랑은 미술사학회가 꾸준히 활발히 活動해온거예요. 앞으로 부탁은 미술사학회가 우리 나라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事務局이 한 곳에 정착하여 누구나 와서 사용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정보 교환처가 되어야 합니다.

鄭永鎬.. 첫째는 우리 학회의 內實을 기하자는 뜻에서 게재 논문을 엄선하고 本來의 使命인 新資料를 색출하여 學界에 알리는 것이며 둘째, 회원의 확보, 확충에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셋째로는 퇴직발간과 함께

자료집 발간, 또 새로운 遺蹟·遺物의 調査에 對한 발표회 등의 학회 활동이 활발했으면하고 회원의 著作에 對한 출판기념회 등 여러모임으로 회원간의 친목의 기회도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崔淳雨..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우리 고고미술동인들의 새로운 史料발견이 많았으므로 考古美術은 新資料의 速報역활을 해왔는데 새 자료를 다른데 뺏기지 말고 앞으로는 速報의 傳統이 이어가면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문마다 간단한 英文초록을 싣는 方向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外國에도 會誌가 많이 나가는데 이전 서로 資料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金元龍.. 그러면 좋지요. 秦弘燮.. 考古美術同人會가 韓國美術史學會로의 發展은 八年 餘를 매월 거르지 않고 학회지를 발행한 同人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회는 학회답게 깊어있는 논문을 실어야 하겠고 사실 現學會들이 경제적으로 빈약하여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創刊同人들이 없더라도 학회가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러자면 저변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同人들과 學會가 활발히 활동하여 그 活動結果를 학회지에 싣고 좋은 논문을 많이 실어 동인들, 회원들을 흡수하여야겠어요.

秦弘燮.. 오늘 이렇게 澗松宅에 모였읍니다. 우리學會가 創立二十周年을 맞아 좌담회를 가지려하는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니 全校長이 創刊同人이신 澗松先生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집에서 합시다하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澗松宅에 모였는데 全校長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全晟雨.. 이렇게 아무 준비없이 여러 先生님들을 모시게 되어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고 보니 澗松이 함께한 것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으나 앞으로라도 澗松이 그렇게 아끼시던 考古美術의 모임이나 學會일에 最善을 다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심부름도 시켜주시고 또 제가 澗松의 뜻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秦弘燮 : 이번에는 澗松美術館에서 매년 특별전을 열고 있고 우리學會의 出版담당위원인 崔完秀先生, 特히 澗松美術品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崔完秀 :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은 없으나 考古美術 創刊時節의 先生님들 연배의 세대로 선생님을께서 닦아 놓으신 터전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澗松先生께서는 美術品만 수집하신 것이 아니라 원대한 뜻으로 後學을 위하여 방대한 관저서적을 수집하셔서 기초학문을 할 수 있고, 서적을 통하여 미술품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속에 한 一五년 淸문히니까 이제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王陵石物調査를 하는데 石物調査만으로는 부족하여 陵의 儀軌를 다룬 山陵都監儀軌와 朝鮮王朝實錄을 뒤지고 또 澗松先生이 모으신 淸文種의 문집, 서울대소장의 문집을 뒤져 그 樣式推定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멀리 내어다 보시고 방대한 서적을 수집하신 澗松의 큰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미술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셨을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공부하는 우리는 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있는 論文을 써 나가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며, 다른 一般史와 연관해서 미술품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면도 해결하고 기록자의 주관이 개재된 기록만에 의하여 잘못 알려진 일반사를 바로잡는 것이 미술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일이 저희 澗松美術館에서 해야 할 일이고 美術史學會 일과도 區分되는 일이나 나라 생각합니다.

秦弘燮 :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二〇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 지난 날을 돌리켜 보면 감회가 깊습니다. 考古美術同人會를 創設할 때는 여기 모인 創刊同人들이 四〇을 갓 넘은 때였는데 모두 머릿도 많이 빠지고 희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아끼고 키워주시던 澗松先生이 他界하신 지금 全校長宅에 이렇게 모이니 二

〇년전 澗松宅에 모이던 시절이 새삼 되살아 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熱과 誠을 가지고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美術史學界도 차츰 폭과 깊이를 더 해가서 이 方面을 공부하는 學徒들의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은 태산 같이 많습니다. 앞으로 젊은 學徒들이 많이 배출되어 美術史學會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又玄先生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學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全校長께 거듭 감사료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祝杯를 들고 이 좌담회를 끝맺겠습니다.